



## 다수 의견은 소수 의견을 어떻게 침묵에 이르게 하는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의 매개 효과 검증

**정다운**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BK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정성은**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How Does the Majority Silence the Minority?

Tests of Mediating Effects of Isolation Fear and Debate Success Expectancy\*

**Da-Eun Jeong\*\***

Postdoctoral Researcher, Brain Korea 21 Project f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ungeun Chung\*\*\***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measures of fear of isolation, as theorized in the spiral of silence thesis, used across previous studies. It categorized the measures into three groups: dispositional, situational and argumentative. It then hypothesizes these groups as mediators between perceived opinion climate and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The hypotheses were tested on the issue of minimum wage in South Korea by an experiment in which participants were put in either two: a face-to-face debate ( $N=367$ ) or an online debate ( $N=327$ ). The results showed that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affected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however,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did not mediate the effect of opinion climate on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Second, debate success expectancy mediated the effect of opinion climate on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Third, relative argument strength affected the debate success expectancy. Fourth, attitude certainty affected the debate success expectancy.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fear of isolation, debate success expectancy, relative argument strength, attitude certainty, willingness to express

---

\* This study is based on the dissertation submitted by Da-Eun Jeong for Ph.D. degre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19 (이 논문은 정다운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itzmede@gmail.com

\*\*\* chseun@skku.edu, corresponding author

# 1. 문제제기

침묵의 나선 이론(theory of the spiral of silence, Noelle-Neumann, 1974)은 논쟁적 사안에 관한 개인의 의사표현 여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Kennamer, 1990). 노엘레-노이만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지각할 경우,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침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Noelle-Neumann, 1974, 1977, 1993). 즉,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의 주요 결정 변수이며,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ennamer, 1990; Scheufele, Shanahan, & Lee, 2001).

다수의 연구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위축되는 현상을 발견했지만(Glynn & Park, 1997; Ho, Chen, & Sim, 2013; Ho & McLeod, 2008; Moy, Domke, & Stamm, 2001; Scheufele, 1999; Scheufele et al., 2001), 일부 연구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Petric & Pinter, 2002; Willnat, Lee, & Detenber, 2002). 최근 카츠와 피알코프(Katz & Fialkoff, 2017)는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더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개념 중 하나로 침묵의 나선을 언급했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 등 주요 변수들의 개념화와 조작화가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헤이즈, 매티스, 이블랜드(Hayes, Matthes, & Eveland, 2013)도 기존 연구들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상이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엄격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들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를 측정된 선행 연구들의 문항을 검토, 분석하여 이들이 측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후 각 유형별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 그리고 의사표현 여부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의사표현 여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노엘레-노이만의 주장은 공적인 상황에서 소수 의견이 표현될 가능성을 간과하거나,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Katz & Fialkoff, 2017; Price & Allen, 1990). 최근 정다운과 정성은(2018)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보다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노엘레-노이만의 초기 논문(1974)을 검토하여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과 정성은의 연구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의사표현 여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여 소수 의견인 경우에도 의사를 표현하는 사례(즉, 소수 의견일지라도 논쟁에서의 승리를 예상할 경우, 발언하는 사례)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일부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한적인 문항을 차용하여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엄격히 검증하지 못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관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첫째,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 문항들을 검토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각각이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정다은과 정성은의 연구(2018)에서 제시된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의 매개 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여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치중된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의사표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서의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검토

노엘레-노이만은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의사표현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침묵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Noelle-Neumann, 1974, 1977, 1993).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는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Glynn, Hayes, & Shanahan, 1997; Hayes et al., 2013; Kennamer, 1990). 노엘레-노이만은 초기 연구(1974)에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측정하지 않았고, 후속 연구(1977)에서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로 상황을 가정했지만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슈펠레와 모이(Scheufele & Moy, 2000)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변수로 간주해 측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노엘레-노이만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심을 포괄”한다고 정의했다(Noelle-Neumann, 1974, p. 45). 그러나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심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내용상 상이한 변수이므로, 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각 변수의 독자적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성향 혹은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Neuwirth,

2000),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성격의 변수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노엘레-노이만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sup>1)</sup>

노엘레-노이만 이후의 연구들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했다(박경숙·이관열, 2012; Hayes et al., 2013; Kim, Kim, & Oh, 2014; Moy et al., 2001; Neuwirth, 2000; Petric & Pinter, 2002; Scheufele et al., 2001).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측정 문항을 검토하여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참조). 17개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은 크게 4개 연구(Glynn & Park, 1997; Hayes et al., 2013; Infante & Rancer, 1982; Scheufele et al., 2001)에서 사용된 문항을 반복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 유형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변수가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논쟁 성향(Argumentativeness)

일부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논쟁을 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논쟁에서 승리하게 두는 경향이 있다’ 등의 문항을 사용했다(Ho et al., 2013; Ho & McLeod, 2008; Kim et al., 2014; Scheufele et al., 2001; Yun & Park, 2011). 그러나 이는 논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다. 논쟁 성향은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고, 상반된 의견의 사람들과 언쟁하는 경향”(Infante & Rancer, 1982, p. 72)을 의미하는 성향적 변수(dispositional variable)이다.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 성향은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만, 일부 연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논쟁 성향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 의사표현 여부와의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구분된다. 노엘레-노이만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받으며,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Noelle-Neumann, 1974, 1977, 1993).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종속 변수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Baron & Kenny, 1986).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 달라져야 하므로, 일정 기간 변하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에 관한 변수들은 매개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논쟁 성향은 개인의 성격에 해당하는 성향적 변수이므로,

---

1) 뉴워스의 연구에서 성향(disposition or trait)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개인적 차원의 특성 혹은 경향성을 의미하며, 상황(condition or state)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Neuwirth, 2000; Neuwirth, Frederick, & Mayo, 2007).

Table 1.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for Fear of Isolation in Previous Studies

Study	Measurement items	Conceptual definition	Source
Glynn & Park (1997)	If your opinion on (relevant issue) became widely known in this town, how concerned would you be that these same people would begin to avoid you or act differently toward you somehow?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single item)	original
Neuwirth, Frederick, & Mayo (2007)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Glynn & Park (1997)
Scheufele (1999)	Situation: Imagine for a moment you would actually enter a discussion in order to express your own opinion. ... You're about to express your opinion on the new regulation of smoking in a discussion with other people. What are the first things that come to your mind? Coding: awareness and perception of opinion distributions, internal conflict about opinion expression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original
Park & Lee (2012)	I worry about being isolated when I told others my opinion on the issue of U.S. mad cow beef import.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single item)	original
Neuwirth (2000)	I like to stick to opinions even though everyone is against me. At times, I worry that others might not like me.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four items)	original
Willnat, Lee, & Detenber (2002)	Many times people say things they don't believe so that they will be accepted by others. At times, I worry about not being accepted by others.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three items)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four items)	Neuwirth (2000)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two items)
Moy, Domke, & Stamm (2001)	I worry about being isolated if people disagree with me.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single item)	original
Scheufele, Shanahan, & Lee (2001)	I worry about being isolated if people disagree with me. I don't worry about other people avoiding me. I enjoy a good argument over a controversial issue.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single item) argumentativeness (four items)	Moy et al (2001)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Infante & Rancer (1982) <sup>a)</sup> (argumentativeness, four items)
Yun & Park (2011)			Scheufele et al (2001)

Study	Measurement items	Conceptual definition	Source
Jeong & Chung (2018)	I worry about being negatively evaluated when others disagree with me. I avoid telling other people what I think when there's a risk they'll avoid me if they knew my opinion. I worry about being alone.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single item)	Scheufele et al (2001)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Willnat et al (2002)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single item)
Ho & McLeod (2008)	I worry about being isolated if people disagree with me. Arguing over controversial issues improves my intelligence.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argumentativeness (four items)	Scheufele et al (2001)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argumentativeness)
Ho, Chen, & Sim (2013)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two items) argumentativeness (three items)	Ho & McLeod (2008)
Kim, Kim, & Oh (2014)	I worry about being negatively evaluated when others disagree with me.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single item) argumentativeness (two items) etc (single item)	Infante & Rancer (1982) (argumentativeness, single item)
Shim & Oh (2018)	I tend to let the other person win an argument even when I know I am right.		Kim et al (2014)
Petric & Pinter (2002)	I avoid social gatherings.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three items)	original
Hayes, Matthes, & Eveland (2013)			original
Gearhart & Zhang (2015)	It would bother me if no one wanted to be around me.	dispositional fear of social relation (five items)	Hayes et al (2013)
Chan (2018)			

<sup>a)</sup> Infante and Lancer (1982) developed measurement items to measure argumentativeness. Some of these items were used to measure fear of isolation: Arguing over controversial issues improves my intelligence (IR2), I enjoy avoiding arguments (IR3), I enjoy a good argument over a controversial issue (IR9), I try to avoid getting into argument (IR19).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 등 상황적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논쟁 성향은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가 될 수 없고, 의사표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논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논쟁 상황에서의 의사표현을 즐기지만, 논쟁 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Hayes, Glynn, & Shanahan, 2005; Infante & Rancer, 1982). 논쟁 성향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논쟁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꺼리게 될 것이다.

## (2)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일부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발생할 상황(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고립시키는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예, 걱정, 두려움)으로 파악했다(Glynn & Park, 1997; Neuwirth et al., 2007; Scheufele, 1999).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글린과 박은경(Glynn & Park, 1997)은 '당신의 의견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거나 당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질문했고, 박경숙과 이관열(2012)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나의 의견을 말하면 내가 고립될 걱정을 하였다'라는 문항을 사용했다. 이상의 문항들은 고립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지(즉, 개인적 성향)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혹은 사안을 제시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예, 고립이나 소외, 따돌림 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 혹은 특정 상황에서 소수 의견임을 인지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경우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걱정 혹은 두려움은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입장일지라도 자신이 다수 의견임을 인지할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의견이 다수 혹은 소수 의견인지에 따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질 수 있고, 걱정 혹은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에 관한 노엘레-노이만의 주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접근이다. 즉,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상황적 변수로 간주할 경우, 이는 개인적인 특징과 무관한 변수이므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효과를 의사표현 여부에 전달하는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엘레-노이만이 주장했던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 효과를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측정 문항들을 이용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기설 2.**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vs. 소수 의견)에 속한다는 지각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매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일부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성향적 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작해 사용하였다(Gearhart & Zhang, 2015; Ho et al., 2013; Kim et al., 2014; Scheufele et al., 2001; Yun & Park, 2011).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성향 변수로 간주한 연구들은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①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의 성향으로 간주한 연구들은 대부분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에 주목하였다(Ho et al., 2013; Kim et al., 2014; Moy et al., 2001; Scheufele et al., 2001; Yun & Park, 2011).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립되는 것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했다. 이상의 문항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 혹은 소수 의견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상의 연구들이 측정한 내용이 고립을 두려워하는 개인의 성향(즉,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개인적 특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측정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임을 지각할 경우,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즉,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 기설 3.**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클수록,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②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일부 연구들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사회적

모임을 피하려 한다', '나는 가끔 혼자가 되는 것을 걱정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했다(Gearhart & Zhang, 2015; Hayes et al., 2013; Petric & Pinter, 2002). 이는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는 개인의 성향은 논쟁 상황 혹은 의사표현 여부와 밀접히 연관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또한 자신의 의견이 다수 혹은 소수 의견에 속하는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성격에 관한 것이므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거나 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부적절한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중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에 주목하여 해당 변수가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서의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대한 검토

노엘레-노이만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소수 의견이라고 지각할 경우에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껴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지만(Noelle-Neumann, 1974, 1977, 1993), 그렇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정효명, 2012; Price & Allen, 1990; Scheufele & Moy, 2000). 정다은과 정성은(2018)은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이나 고립에 대한 두려움보다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노엘레-노이만의 초기 저작(Noelle-Neumann, 1974)에 언급된 "특정 제안과 관점의 견고성(the strength), 성공 가능성(the chances of success)을 평가해 의사표현 여부를 판단한다"(p. 44)는 주장을 토대로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드(THADD)의 한반도 배치를 주제로 사회적 모임과 인터넷 포털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를 검증했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정다은과 정성의 연구는 의사표현 여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변수의 효과를 제안하고, 이를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사드라는 이슈의 성격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의 성향으로 간주하여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논쟁 상황이나

의사표현 여부와 관련성이 낮은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는 성향적 두려움'의 측정 문항을 혼용하여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정확한 문항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사용하여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면 보다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다은과 정성은(2018)의 연구를 토대로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를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의 변화를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 (1)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정다은과 정성은(2018)은 논쟁을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 간의 게임(Langlois & Langlois, 2007)으로 간주하고, 논쟁 상대에 따라 논쟁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논쟁 상황에서는 승자에게 보상(즉, 능력에 대한 인정 등 사회·심리적 보상)이, 패자에게 벌칙(즉, 체면과 자존감 하락 등 부정적 효과)이 주어지므로 사람들이 논쟁에서의 승리를 원하며(Langlois & Langlois, 2007; Oshagan, 1996), 성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의사표현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Bandura, 1977; Kruglanski et al., 2015; Scheier & Carver, 1992),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즉, 상대방을 설득할 가능성)을 낮게 지각할 경우(예, 전문가와의 논쟁)에는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논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 경우에는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정다은과 정성은은 논쟁에서의 성공을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즉, 명시적 동조)'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즉, 암묵적 동의)'로 개념화하고, 응답자들에게 '사드 배치에 관한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했을 때, 모임 구성원(혹은 사이트 이용자)의 대다수가 귀하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연구 결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은 의사표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으로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다은과 정성은(2018)의 가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의 효과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4.**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vs. 소수 의견)에 속한다는 지각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매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의 선행 변수들

### ①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노엘레-노이만 등의 연구자들은 의견 분위기가 자신에게 적대적일지라도, 자신의 주장이 견고하다고 지각할 경우에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Glynn & McLeod, 1984; Noelle-Neumann, 1974; Tormala & Rucker, 2007). 논쟁 상황에서 상이한 주장이 충돌할 경우,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으로 간주되어 상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현택수, 2017; Freeley & Steinberg, 2014). 발다사레와 카츠(Baldassare & Katz, 1996)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견고하다고 지각할수록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정다은과 정성은(2018)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주장의 견고성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즉, 논쟁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논쟁을 통해 승패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주장이 상대에 비해 얼마나 견고하다고 지각(즉,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하는지에 따라 의사표현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들은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표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모임과 인터넷 포털 상황에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의사표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할 경우에는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다은과 정성의 연구(2018)에서 사용된 가설을 토대로, 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의 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5.** 자신의 주장이 타인의 주장에 비해 견고하다고 지각할수록,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며,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다.

### ②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노엘레-노이만은 “자신의 관점이 사회적 지지를 잃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며 의사표현을 자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Noelle-Neumann,

1974, p. 44). 자신의 의견 혹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확신(attitude certainty, Tormala & Rucker, 2007)은 의사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sorsa, 1991; Matthes, Morrison, & Schemer, 2010; Petrocelli, Tormala, & Rucker, 2007). 정다은과 정성은(2018)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논증을 통해 '상대적으로 옳은 의견'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자신의 의견에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를 질문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고, 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의사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다은과 정성의 연구(2018)에서 사용된 가설을 토대로, 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의 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6.**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며,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69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되며,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설 검증에 적합한 주제로 판단했다(김귀임, 2018, 8, 2; 허란, 2018, 1, 19).<sup>2)</sup>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면대면 상황과 온

2)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제를 사용하여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노엘레-노이만은 동독에 대한 인식(1971), 비혼 동거(1972), 독일 공산당의 불법화(1972), 사형제도(1972, 1975, 1977), 원자력 발전소 건설(1977) 등을 주제를 사용했다. 후속 연구자들 또한 낙태(예, Yun & Park, 2011), 대통령 탄핵(예, Neuwirth, 2000), 유전자 조작 식품(예, Kim et al., 2014; Scheufele et al., 2001), 동성 결혼 합법화(예, Ho & McLeod, 2008), 미국산 소고기 수입(예, 박경숙·이관열, 2012), 햇볕 정책(예, Kim, Han, Shanahan, & Berdayes, 2004) 등 논란이 되거나, 정치·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사용했다.

라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 경우를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를 측정하였다. 두 상황의 가설 검증은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다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면대면 상황( $n = 367$ )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내 동호회 회식에서 발생한 논쟁 상황을 제시했다. 온라인 상황( $n = 327$ )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발생한 논쟁 상황을 제시했다. 상황별로 논쟁 상대의 의견(다수 찬성 의견 vs. 다수 반대 의견)을 무작위로 제시한 뒤,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 회피 성향,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등을 측정하여 이들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 1) 실험 참여자와 실험 절차

자료 수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였다. 기관에 등록된 전국의 조사 대상자 1,144,842명 중 인구사회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응답자를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사전조사에서는 논쟁 상황을 면대면 상황과 온라인 상황에서의 논쟁으로 분류하고, 각 상황에서 다른 기준으로 피험자를 선정했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직업을 질문해 직장인을 피험자로 선정했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여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을 본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페이스북 이용 경험을 질문해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피험자로 선정했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을 본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했다.<sup>3)</sup> 두 상황에서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487명이었고, 이들 중 1,057명이 본조사를 시도했다. 본조사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사내 동호회 회식에서의 논쟁 상황을,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의 논쟁 상황을 제시했다. 각 상황의 응답자들은 상황 내에서 제시된 조건(다수 찬성 의견 vs. 다수 반대 의견)에 무선택당되었다. 본조사를 시도한 사람 중 불성실한 답변을 보인 363명을 제외한 694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했다.<sup>4)</sup> 최종 표본은 남성 339명(48.8%), 여성

3)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7점 척도로 측정했다(1 = 매우 부정적, 2 = 부정적, 3 = 부정적인 편, 4 = 중립 또는 입장 없음, 5 = 긍정적인 편, 6 = 긍정적, 7 = 매우 긍정적).

4) 본 연구는 다음의 기준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보인 응답자들( $n = 363$ )을 판별했다. 첫째, '이 문항을 읽으셨다면, 보기에서 6을 선택해주시시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6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 173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귀하가 본 설문에서 답변한 내용을 여론을 대변하는 자료로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은 16명을 분석에서 제외했다(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중복 응답자 5명). 셋째, 응답자들에게 다수 찬성 혹은 다수 반대 상황을 제시한 뒤, 제시된 상황과 반대로 답변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사회적 모임 상황 61명, 페이스북 뉴스피드 상황에서 108명 제외).

355명(51.2%)으로, 연령은 20세부터 69세의 분포를 보였다( $M = 46.14$ ,  $SD = 13.53$ ). 이들 중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354명(51%), 반대하는 사람은 340명(49%)이었다.

면대면 상황( $n = 367$ )에서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vs. 반대)하는 상황은 '귀하가 소속된 사내 동호회의 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식에는 귀하를 포함해 8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식 중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었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인상안이 바람직한(vs.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4명의 참석자가 인상안에 찬성(vs. 반대)한다는 의견을, 2명의 참석자가 반대(vs.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로 제시했다. 이후 해당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 고립에 대한 두려움, 논쟁 회피 성향,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등을 측정했다. 면대면 상황의 응답자들은 남성 177명(48.2%), 여성 190명(51.8%)으로, 연령은 22세에서 69세의 분포를 보였다( $M = 45.95$ ,  $SD = 12.27$ ). 이들 중 인상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186명(50.7%), 반대하는 사람은 181명(49.3%)이었다. 다수가 찬성하는 조건에 할당된 사람은 196명(53.4%), 다수가 반대하는 조건에 할당된 사람은 171명(46.6%)이었다.

온라인 상황( $n = 327$ )에서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vs. 반대)하는 상황은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게시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바람직한(vs.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다수의 이용자가 이에 동조(vs. 반대)하는 댓글을 등록했고, 소수의 이용자가 반대(vs. 찬성)한다는 댓글을 등록했습니다.'로 제시했다. 이후 해당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 고립에 대한 두려움, 논쟁 회피 성향,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등을 측정했다. 온라인 상황의 응답자들은 남성 162명(49.5%), 여성 165명(50.5%)으로, 연령은 20세에서 69세의 분포를 보였다( $M = 46.34$ ,  $SD = 14.84$ ). 이들 중 인상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168명(51.4%), 반대하는 사람은 159명(48.6%)이었다. 다수가 찬성하는 조건에 할당된 사람은 170명(52%), 다수가 반대하는 조건에 할당된 사람은 157명(48%)이었다.

## 2) 독립 변수 및 매개 변수의 조작과 측정

### (1)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소수 의견 여부)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사전조사에서 질문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과 설문에서 조작해 제시한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산출했다. 의견 일치 조건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다수가 찬성하는 조건에 할당되거나, 인상안에 반대한다고 답

변한 사람이 다수가 반대하는 조건에 할당된 경우로 설정했다. 의견 불일치 조건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다수가 반대하는 조건에 할당되거나, 인상안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다수가 찬성하는 조건에 할당된 경우로 설정했다. 면대면 상황( $n = 367$ )에서 의견 일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76명, 의견 불일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91명이었다. 온라인 상황( $n = 327$ )에서 의견 일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1명, 의견 불일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46명이었다.

## (2)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는 선행 연구(Fazio & Zanna, 1978; Gearhart & Zhang, 2015; Tormala & Rucker, 2007)에서 문항을 차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를 질문했고, 이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 = 전혀 확신하지 못함, 50% = 절반 정도 확신함, 100% = 매우 확신함, 단위 10%).

## (3)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정다운과 정성은의 연구(2018)에서 문항을 차용해 측정하였다. 면대면 상황에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귀하가 속한 사내 동호회의 다른 구성원 또는 직장 동료들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상안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상안 관련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상안 관련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상안 관련 내용을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상안 관련 내용을 더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인상안 관련 주장과 근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의 6개 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했다(0 = 전혀 그렇지 않다, 5 = 그저 그렇다(보통), 10 = 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6$ ,  $M = 5.74$ ,  $SD = 1.64$ ).

온라인 상황에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귀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면대면 상황과 동일한 문항과 척도로 측정했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7$ ,  $M = 5.69$ ,  $SD = 1.77$ ).

#### (4) 논쟁 회피 성향(논쟁 성향)

논쟁 회피 성향은 논쟁 성향 척도(Infante & Rancer, 1982)를 변용해 '나는 갈등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논쟁을 즐기지 않는다', '나는 논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종종 논쟁에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의 3개 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했다(0 = 전혀 그렇지 않다, 5 = 그저 그렇다(보통), 10 = 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0$ ,  $M = 5.13$ ,  $SD = 2.05$ ).

#### (5)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은 선행 연구들(Kim et al., 2014; Moy et al., 2001; Scheufele et al., 2001)의 문항을 변용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지를 걱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질지를 걱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지를 걱정한다'의 3개 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했다(0 = 전혀 그렇지 않다, 5 = 그저 그렇다(보통), 10 = 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7$ ,  $M = 3.77$ ,  $SD = 2.23$ ).

#### (6)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은 선행 연구들(박경숙·이관열, 2012; Glynn & Park, 1997; Neuwirth et al., 2007)의 문항을 변용해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그로 인해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질지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그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지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그로 인해 내가 고립될지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의 3개 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했다(0 = 전혀 그렇지 않다, 5 = 그저 그렇다(보통), 10 = 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6$ ,  $M = 4.06$ ,  $SD = 2.22$ ).

#### (7)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은 자신의 의견에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과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가능성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면대면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에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은 '귀하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을 때, 참석자 중 다수가 귀하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11점 척도(0% = 동의할 가능성 전혀 없음,

50% = 동의할 가능성 반반, 100% = 동의할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 10%)로 측정했다( $M = 6.00$ ,  $SD = 1.65$ ).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가능성은 '귀하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을 때, 참석자 중 다수에게 귀하의 의견을 이해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11점 척도(0% = 이해할 가능성 전혀 없음, 50% = 이해할 가능성 반반, 100% = 이해할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 10%)로 측정했다( $M = 6.19$ ,  $SD = 1.53$ ).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5$ ,  $M = 6.10$ ,  $SD = 1.48$ ).

온라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에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은 '귀하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을 때, 페이스북 이용자 중 다수가 귀하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11점 척도(0% = 동조할 가능성 전혀 없음, 50% = 동조할 가능성 반반, 100% = 동조할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 10%)로 측정했다( $M = 5.47$ ,  $SD = 1.91$ ).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가능성은 '귀하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을 때, 페이스북 이용자 중 다수가 귀하의 의견을 이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11점 척도(0% = 이해할 가능성 전혀 없음, 50% = 이해할 가능성 반반, 100% = 이해할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 10%)로 측정했다( $M = 5.75$ ,  $SD = 1.79$ ).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7$ ,  $M = 5.61$ ,  $SD = 1.74$ ).

## (8)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통제 변수로 사용했다. 이슈 관심도는 '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나는 평소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한 보도를 관심 있게 본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대화한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나와 관련된 문제이다'의 6개 문항을 11점 척도로 측정했다(0 = 전혀 그렇지 않다, 5 = 그저 그렇다(보통), 10 = 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면대면 상황: Cronbach's  $\alpha = .88$ ,  $M = 6.17$ ,  $SD = 1.57$ , 온라인 상황: Cronbach's  $\alpha = .86$ ,  $M = 6.26$ ,  $SD = 1.55$ ).

정치 관심도는 선행 연구(정다운·정성은, 2018; Berger, Galonska, & Koopmans, 2004)에서 문항을 차용하여 '나는 평소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등 다른 사람들과 정치 관련 대화를 자주 한다', '나는 평소 모임에서 진행되는 정치 관련 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는 평소 정치 관련 뉴스를 규칙적으로 시청하거나 구독하고 있다', '나는 정치 관련 토론, 공청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의 4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거의

그렇지 않다, 2 = 그저 그렇다(보통), 3 = 가끔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 측정된 문항들은 평균값 계산 후 통합 변수로 사용하였다(면대면 상황: Cronbach's  $\alpha = .84$ ,  $M = 2.06$ ,  $SD = 0.83$ , 온라인 상황: Cronbach's  $\alpha = .89$ ,  $M = 2.10$ ,  $SD = 0.91$ ).

### 3) 종속 변수의 측정

#### (1) 의사표현 가능성

의사표현 가능성은 노엘레-노이만(1974, 1977, 1993)과 후속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식으로 측정했다. 면대면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가능성은 '귀하께서 위의 상황에 처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해 11점 척도(0% = 의견표현 가능성 전혀 없음, 50% = 의견표현 가능성 반반, 100% = 의견표현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 10%)로 측정했다( $M = 6.90$ ,  $SD = 1.98$ ).

온라인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가능성은 '귀하께서 위의 상황에 처한다면, 귀하가 댓글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해 11점 척도(0% = 의견표현 가능성 전혀 없음, 50% = 의견표현 가능성 반반, 100% = 의견표현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 10%)로 측정했다( $M = 5.34$ ,  $SD = 2.74$ ).

## 4. 연구 결과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면대면 상황과 온라인 상황 각각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논쟁 회피 성향,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를 외생 변수로 설정하고,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매개 변수, 의사표현 가능성을 내생 변수로 사용했다. 논쟁 회피 성향과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잠재 변수로 투입하고 각각 3개의 측정치를 사용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이슈 관심도와 정치 관심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뒤 분석에 사용되었다.

### 1) 면대면 상황에서 의사표현 여부의 분석 결과

면대면 상황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된 관측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논쟁 회피 성향의 측정치 3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측정치 3개,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측정치 3개를 투입했다. 이들 변수와 잠재 변수 간 공분산을 허용해 분석한 결과, 표본 자료는 측정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30, n = 367) = 89.92, p < .001, CFI = .99, NFI = .98, RMSEA = .07, SRMR = .04$ ,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논쟁 회피 성향의 관측 변수들이 .76에서 .92,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관측 변수들이 .94에서 .99,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관측 변수들이 .93에서 .98의 값을 보였다.<sup>5)</sup> 이를 토대로 완전 모형(full model)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본 자료는 제시된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64, n = 367) = 127.15, p < .001, CFI = .99, NFI = .97, RMSEA = .05, SRMR = .06$ , <Figure 1>은 면대면 상황에서의 변수 간 경로계수(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

5) 논쟁 회피 성향의 집중 타당도(convergence validity)는 .38,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집중 타당도는 .62,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집중 타당도는 .70이었다. 논쟁 회피 성향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했고, 개념 신뢰도 또한 .65로 기준치인 .7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논쟁 회피 성향과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값(.18)이 두 변수의 AVE보다 작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wte	success	strength	certainty	foi_situ1	foi_situ2	foi_situ3	foi_trait1	foi_trait2	foi_trait3	avoid1	avoid2	avoid3	congruency	M	SD
wte	1	.39**	.33**	.22**	-.09	-.11	-.08	-.13*	-.11*	-.10	-.13*	-.19**	-.26**	.12*	5.34	2.74
success	.47**	1	.93**	.18**	-.02	-.01	-.09	-.08	-.08	-.07	-.03	-.09	-.12*	.41**	5.61	1.74
strength	.15**	.21**	1	.21**	.00	.00	-.09	-.08	-.07	-.06	-.07	-.08	-.12*	.33**	5.69	1.77
certainty	.35**	.15**	.09	1	-.12*	-.13*	-.13*	-.12*	-.11*	-.14**	-.05	-.04	.00	-.03	6.86	2.31
foi_situ1	-.16**	-.20**	-.06	-.04	1	.85**	.82**	.65**	.67**	.68**	.38**	.36**	.32**	.03	4.54	2.42
foi_situ2	-.20**	-.19**	-.04	-.08	.91**	1	.88**	.71**	.71**	.74**	.39**	.40**	.32**	.07	4.00	2.42
foi_situ13	-.19**	-.16**	-.06	-.05	.85**	.91**	1	.71**	.71**	.75**	.41**	.45**	.35**	.05	3.69	2.49
foi_trait1	-.18**	-.19**	-.15**	-.06	.66**	.68**	.69**	1	.90**	.92**	.40**	.42**	.38**	-.03	4.04	2.43
foi_trait2	-.19**	-.21**	-.17**	-.04	.68**	.69**	.71**	.93**	1	.94**	.42**	.48**	.43**	-.06	3.99	2.50
foi_trait3	-.21**	-.20**	-.16**	-.05	.65**	.69**	.72**	.90**	.95**	1	.41**	.46**	.40**	-.03	3.76	2.47
avoid1	-.24**	-.19**	-.26**	.00	.35**	.33**	.32**	.37**	.36**	.33**	1	.78**	.55**	.09	5.54	2.41
avoid2	-.22**	-.21**	-.22**	-.01	.34**	.31**	.29**	.37**	.37**	.35**	.82**	1	.68**	.04	5.26	2.42
avoid3	-.23**	-.13*	-.16**	-.03	.41**	.40**	.39**	.42**	.44**	.42**	.66**	.69**	1	-.02	5.06	2.32
congruency	.09	.24**	-.06	-.05	-.01	-.02	.01	.03	.01	.00	-.01	-.05	.01	1	0.55	0.50
M	6.90	6.10	5.74	6.77	4.37	4.06	3.74	3.88	3.81	3.62	5.35	5.12	4.92	0.52		
SD	1.98	1.48	1.64	2.28	2.26	2.29	2.37	2.31	2.38	2.39	2.19	2.26	2.31	0.50		

Note. In the correlation analysis, residuals were used that eliminated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income, issue interest, and political interest (face-to-face situation:  $N = 367$ , online situation:  $N = 327$ ). wte =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success = perceived success expectancy in debate; strength = relative argument strength; certainty = attitude certainty; foi\_situ =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foi\_trait = dispositional fear of isolation; avoid = argumentativeness; congruency = congruency with perceived majority opinion (incongruency = 1, congruency =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for the online situation are presented in the upper diagonal matrix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for the face-to-face situation are presented in the lower diagonal matrix. \* $p < .05$ , \*\* $p < .01$ .

(1)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2는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검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PROCESS macro v3.2)로 다중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3〉 참조).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이슈 관심도와 정치 관심도를 통제 변수,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 변수로 투입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를 독립 변수, 의사표현 가능성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2 = .01$ ,  $b = -0.03$ ,  $SE = .23$ ,  $t[359] = -.12$ ,  $p = .903$ ).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은 의사표현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38$ ,  $b = -0.08$ ,  $SE = .04$ ,  $t[357] = -2.22$ ,  $p = .027$ ).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의사표현 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R^2 = .38$ ,  $b = -0.09$ ,  $SE = .17$ ,  $t[357] = -.52$ ,  $p = .604$ ). 간접 효과의 검증을 위해 표본 수를 5,000으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위 경계 값과 하한 경계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 < .01$ ,  $SE = .02$ , 하한 경계 =  $-.04$ , 상한 경계 =  $.05$ ). 따라서 면대면 상황에서 연구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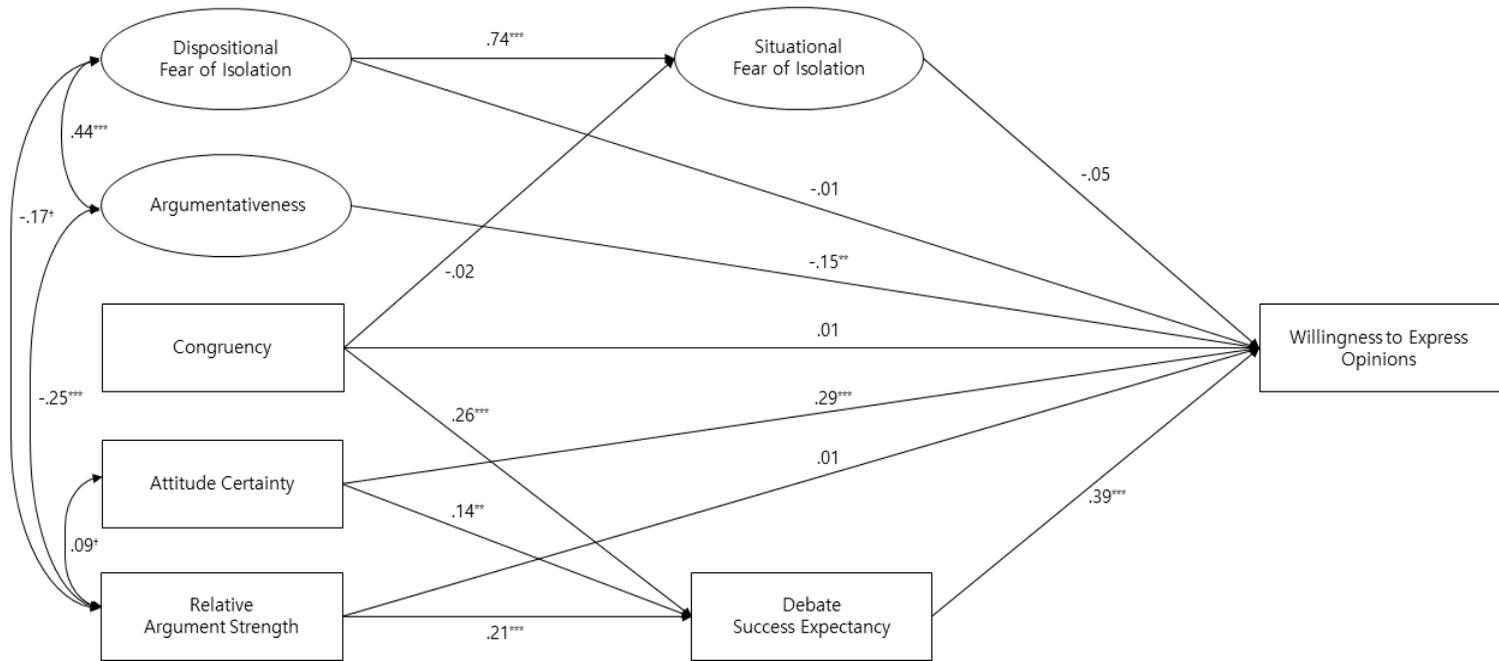


Figure 1.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face-to-face situ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reported.  $\chi^2(df = 64, N = 367) = 127.15, p < .001$ , CFI = .99, NFI = .97, RMSEA = .05, SRMR = .06 (Low 90%: .04, High 90%: .07). congruency = congruency with perceived majority opinion (incongruency = 1, congruency = 2).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3. Results of Process Macro Analysis for the congruency with Perceived Majority Opinion on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the Face-to-Face Situation

		b	SE	CI	
				LL	UL
Indirect effect	congruency				
	→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00	.02	-.04	.05
	→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				
Direct effect	congruency				
	→ debate success expectancy	.39*	.10	.20	.61
	→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				
Total effect		.30	.19	-.06	.15

Note.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of the confidence interval, UL = upper limit of the confidence interval. \* $p < .05$ .

### (2)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3은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클수록,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클수록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경로계수 = .74,  $SE = .04$ ,  $p < .001$ ). 따라서 면대면 상황에서 연구 가설 3은 지지되었다.<sup>6)</sup>

### (3) 논쟁 회피 성향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1은 논쟁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의사표현을 꺼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논쟁 회피 성향은 의사표현 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경로계수 = -.15,  $SE = .05$ ,  $p = .002$ ). 따라서 면대면 상황에서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6)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은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준화 경로계수 = -.01,  $SE = .06$ ,  $p = .925$ ).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클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일 때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다수 의견과의 불일치 = 0, 다수 의견과의 일치 = 1)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 = -0.07$ ,  $SE = .16$ ,  $\beta = -.02$ ,  $t = -.45$ ,  $p = .655$ ). 다수 의견과의 의견 일치 여부와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상호작용 변수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17$ ,  $SE = .08$ ,  $\beta = .08$ ,  $t = 2.12$ ,  $p = .034$ ).

#### (4)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4는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검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로 다중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3〉 참조).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이슈 관심도와 정치 관심도를 통제 변수,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매개 변수로 투입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를 독립 변수, 의사표현 가능성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정(+)적인 영향(즉, 다수 의견과 일치할 경우에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23$ ,  $b = 0.65$ ,  $SE = .14$ ,  $t[359] = 4.74$ ,  $p < .001$ ).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은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2 = .38$ ,  $b = 0.60$ ,  $SE = .06$ ,  $t[357] = 9.23$ ,  $p < .001$ ). 간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39$ ,  $SE = .11$ , 하한 경계 = .20, 상한 경계 = .62). 이러한 결과는 완전 매개됨을 보여준다( $R^2 = .38$ ,  $b = -0.09$ ,  $SE = .17$ ,  $t[357] = -.52$ ,  $p = .604$ ). 따라서 면대면 상황에서 연구 가설 4는 지지되었다.

#### (5)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5는 자신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비해 견고하다고 지각할수록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사표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경로계수 = .21,  $SE = .06$ ,  $p < .001$ ). 그러나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준화 경로계수 = .01,  $SE = .07$ ,  $p = .888$ ). 간접 효과의 검증을 위해 재표본추출 횟수를 5,000으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경계 = .04, 상위 경계 = .12,  $p < .001$ ). 따라서 면대면 상황에서 연구 가설 5는 지지되었다.

## (6)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6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사표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표준화 경로계수 = .14,  $SE = .30$ ,  $p = .004$ )과 의사표현 여부(표준화 경로계수 = .29,  $SE = .04$ ,  $p < .001$ )에 각각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의 검증을 위해 재표본추출 횟수를 5,000으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경계 = .01, 상위 경계 = .11,  $p = .019$ ). 따라서 면대면 상황에서 연구 가설 6은 지지되었다.

## 2) 온라인 상황에서 의사표현 여부의 분석 결과

온라인 상황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된 관측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논쟁 회피 성향의 측정치 3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측정치 3개,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측정치 3개를 투입했다. 이들 변수와 잠재 변수 간 공분산을 허용해 분석한 결과, 표본 자료는 측정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30, N = 327) = 58.62$ ,  $p = .001$ , CFI = .99, NFI = .98, RMSEA = .05, SRMR = .03, 요인 적재치는 논쟁 회피 성향의 관측 변수들이 .71에서 .96,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관측변수들이 .94에서 .98,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관측 변수들이 .88에서 .95의 값을 보였다.<sup>7)</sup> 이를 토대로 완전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본 자료는 제시된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64, N = 327) = 142.31$ ,  $p < .001$ , CFI = .98, NFI = .97, RMSEA = .06, SRMR = .05. <Figure 2>는 온라인 상황에서의 변수 간 경로계수(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

7) 논쟁 회피 성향의 집중 타당도는 .33,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집중 타당도는 .49,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집중 타당도는 .70이었다. 논쟁 회피 성향과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은 AVE가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개념 신뢰도 또한 .60, .61로, 기준치인 .7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논쟁 회피 성향과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값(.25)이 두 변수의 AVE보다 작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로 다중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이슈 관심도와 정치 관심도를 통제 변수,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 변수로 투입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를 독립 변수, 의사표현 가능성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2 = .02$ ,  $b = 0.20$ ,  $SE = .27$ ,  $t(319) = .75$ ,  $p = .453$ ).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은 의사표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R^2 = .33$ ,  $b = -0.08$ ,  $SE = .05$ ,  $t(317) = -1.53$ ,  $p = .126$ ),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의사표현 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R^2 = .33$ ,  $b = -0.15$ ,  $SE = .29$ ,  $t(317) = -.53$ ,  $p = .594$ ).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 경계 값과 하한 경계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 = -0.02$ ,  $SE = .03$ , 하한 경계 =  $-.09$ , 상한 경계 =  $.03$ ).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연구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 (2)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3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클수록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경로계수 =  $.80$ ,  $SE = .04$ ,  $p < .001$ ).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연구 가설 3은 지지되었다.<sup>8)</sup>

### (3) 논쟁 회피 성향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1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논쟁 회피 성향은 의사표현 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경로계수 =  $-.18$ ,  $SE = .09$ ,  $p = .002$ ).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

8)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은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준화 경로계수 =  $.02$ ,  $SE = .10$ ,  $p = .795$ ).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클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일 때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39$ ,  $SE = .17$ ,  $\beta = .08$ ,  $t = 2.31$ ,  $p = .022$ ). 다수 의견과의 의견 일치 여부와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의 상호작용 변수는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 = -0.08$ ,  $SE = .08$ ,  $\beta = -.03$ ,  $t = -.95$ ,  $p = .3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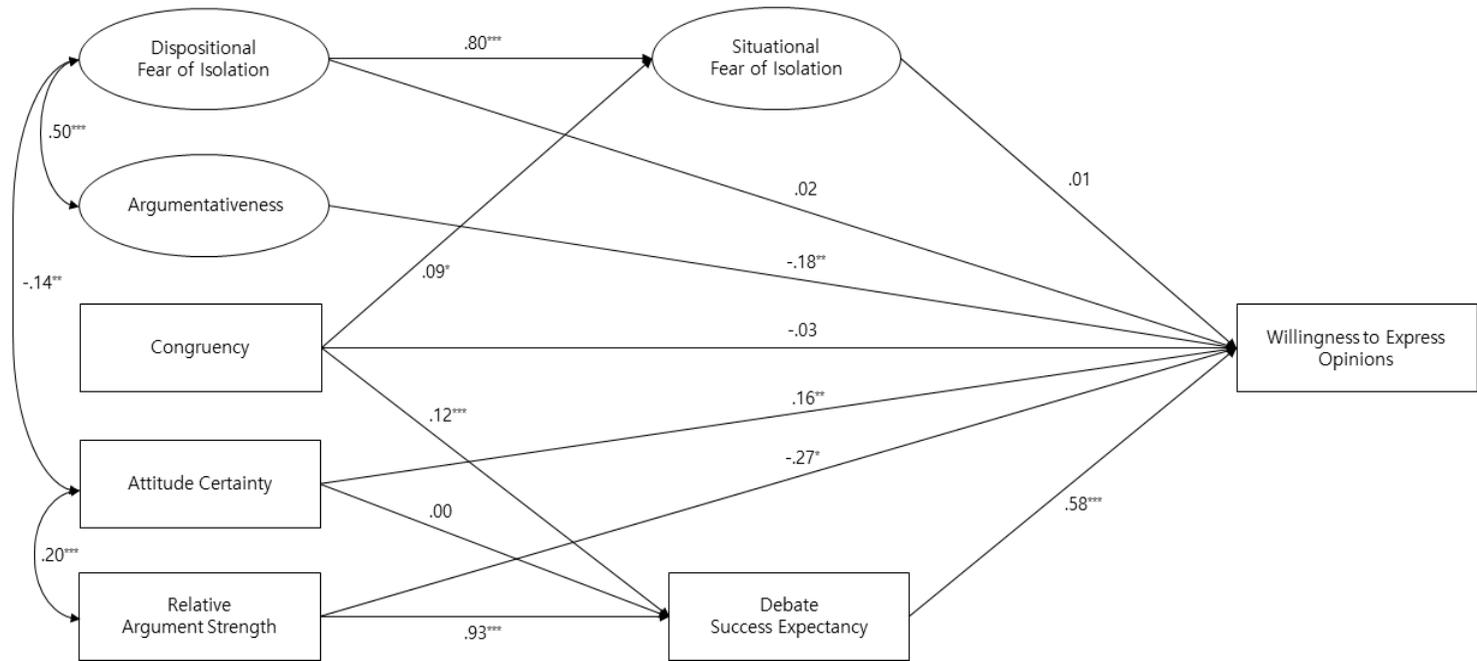


Figure 2.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online situ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reported.  $\chi^2(df = 64, N = 327) = 142.31, p < .001, CFI = .98, NFI = .97, RMSEA = .06, SRMR = .05$  (Low 90%: .05, High 90%: .08). congruency = congruency with perceived majority opinion (incongruency = 1, congruency = 2). †  $p < .10, *p < .05, **p < .01, ***p < .001$ .

Table 4. Results of Process Macro Analysis for the congruency with Perceived Majority Opinion on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the Online Situation

		b	SE	CI	
				LL	UL
Indirect effect	congruency				
	→ situational fear of isolation	-.02	.03	-.08	.03
	→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				
Direct effect	congruency				
	→ perceived success expectancy in debate	.79*	.15	.52	1.11
	→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				
Total effect		.62	.28	.07	1.18

Note.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of the confidence interval, UL = upper limit of the confidence interval. \* $p < .05$ .

#### (4)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4의 검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로 다중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이슈 관심도와 정치 관심도를 통제 변수,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매개 변수로 투입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를 독립 변수, 의사표현 가능성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22$ ,  $B = 1.38$ ,  $SE = .18$ ,  $t(319) = 7.70$ ,  $p < .001$ ). 반면,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가 의사표현 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R^2 = .33$ ,  $B = -0.15$ ,  $SE = .29$ ,  $t(317) = -.53$ ,  $p = .594$ ).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은 의사표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33$ ,  $B = 0.58$ ,  $SE = .08$ ,  $t(317) = 7.01$ ,  $p < .001$ ). 간접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 의견의 일치 여부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79$ ,  $SE = .15$ , 하위 경계 = .50, 상위 경계 = 1.10).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연구 가설 4는 지지되었다.

### (5)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5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정(+ )적인 영향(표준화 경로계수 = .93,  $SE = .02$ ,  $p < .001$ )을, 의사표현 여부에는 부(-)적인 영향(표준화 경로계수 = -.27,  $SE = .19$ ,  $p = .04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의 검증을 위해 재표본추출 횟수를 5,000으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경계 = .27, 상위 경계 = .80,  $p < .001$ ).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연구 가설 5는 지지되었다.

### (6)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6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표준화 경로계수 = .00,  $SE = .01$ ,  $p = .867$ ), 의사표현 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경로계수 = .16,  $SE = .05$ ,  $p = .002$ ). 간접 효과의 검증을 위해 재표본추출 횟수를 5,000으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해 부트스트랩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하위 경계 = -.03, 상위 경계 = .03,  $p = .874$ ).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 연구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사내 동호회 회식 상황과 페이스북 뉴스피드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를 검증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은 의사표현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도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발견되었

고,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통해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지각할수록 사람들은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논쟁에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고,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 또한 높았지만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모든 상황에서 논쟁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의사표현을 자제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여섯째,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논쟁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표현 여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침묵의 나선 이론, 특히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 주목하여 해당 변수가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해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들이 상이한 문항을 사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들이 측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상황적 변수와 성향적 변수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상이한 변수인 논쟁 성향을 분리하여 각 변수가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 등 침묵의 나선 이론을 구성하는 변수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논쟁 성향은 의사표현 여부에 독자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엘레-노이만과 후속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즉, 의사표현 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강할수록 의사표현을 자제하는 현상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독자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논쟁 성향으로 인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을 사용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지만,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 또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 연구가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침묵의 나선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엘레-노이만이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언급했지만, 논의하지 않았던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

다. 논쟁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으나, 기존 연구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보다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관계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정다은과 정성은(2018)의 주장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다은과 정성은은 논쟁 상황을 사회적 게임으로 간주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예상할 경우(즉, 논쟁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은 인터넷 포털 상황에서만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여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 정도는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도 면대면 상황에 한해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을 매개로 의사표현 여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온라인 상황에 비해 면대면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더욱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이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고립에 대한 성향적 두려움’에 일정 부분 상황적 요소가 포함되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 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를 제시하여 측정했기에, 이를 오롯이 성향적 요소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황적 특성을 배제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면대면 상황과 온라인 상황의 비교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두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기에 상황별로 다른 피험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페이스북 뉴스피드는 사내 동호회 회식과 달리 익명성, 개방성 등의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Kim et al., 2014; Neubaum & Kramer, 2016; Slater, 2007), 동일한 피험자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의사표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로 의사표현 여부와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 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상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피험자 내 실험(within-subject

experiment) 설계를 사용하거나, 상황별로 다른 실험 방식(면대면 vs. 온라인)을 사용하여 의사표현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토대로 진행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불분명하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의 의사표현 행위를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대한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의 효과를 검증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의견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배제했지만, 이들의 의사표현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슈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논쟁적 사안이나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박경숙·이관열, 2012; Kim et al., 2004; Kim et al., 2014; Neuwirth, 2000; Noelle-Neumann, 1974, 1977, 1993)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한 논쟁 상황을 제시하여 해당 상황에서의 의사표현 여부를 질문하였고,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했다. 그러나 낙태 등 윤리적이거나 가치가 개입되는 주제 혹은 민주화 운동처럼 상황적 압력이 강한 이슈를 사용할 경우,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이슈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면대면 상황에서 의견 분위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다. 노엘레-노이만 등 선행 연구들은 의견 분위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쟁 상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모임의 어떤 사람' 혹은 '다른 사람', '다수 혹은 소수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8명의 참석자 중 다수를 5명, 소수를 2명'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이 피험자들에게 충분한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은 애쉬(Asch, 1951)의 실험처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 혹은 피험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다수 혹은 소수 의견을 알지 못하는 상황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표현 여부를 측정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면대면 상황처럼 다양한 모임 및 구성원의 성격, 구성원의 수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온라인 상황에서 의견 분위기(즉, 다수 찬성 조건 vs. 다수 반대 조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다. 면대

면 상황에서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치, 다수 혹은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다수 혹은 소수 이용자로만 표현했기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댓글의 80%가 동조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20%가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등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에 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침묵의 나선 이론의 전제와 달리, 의사표현 여부가 상황 혹은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대화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 의사표현 여부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예, 친구와는 정치적 대화를 나누지만, 부모님과와는 정치적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그리고 면대면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연구의 결과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와 검증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선행된다면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해석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시도했던 것처럼 의사표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의사표현 여부에 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며, 현시점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Guetzkow (Ed.), *Groups, leadership and men*. Pittsburgh, PA: Carnegie Press. Reprinted in D. Cartwright, & A. Zander (Eds.), *Group dynamics, research and theory* (pp. 151-162). Evanston, IL: Row, Peterson and company.
- Baldassare, M., & Katz, C. (1996). Measures of attitude strength as predictors of willingness to speak to the media.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147-158.  
doi:10.1177/10776990960730011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doi:10.1037/0033-295X.84.2.19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erger, M., Galonska, C., & Koopmans, R. (2004). Political integration by a detour? Ethnic communities and social capital of migrants in Berl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0, 491-507.  
doi:10.1080/13691830410001682052
- Chan, M. (2018). Reluctance to talk about politics in face-to-face and facebook settings: Examining the impact of fear of isolation, willingness to self-censor, and peer network characteristic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21, 1-23. doi:10.1080/15205436.2017.1358819
- Chung, H. M. (2012). Homogeneou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piral of silence: Focused o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3), 85-109.
- Fazio, R. H., & Zanna, M. (1978). Attitudinal qualities relating to the strength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398-408.  
doi:10.1016/0022-1031(78)90035-5
- Freeley, A. J., & Steinberg, D. L. (Eds.), (2014).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 Boston, MA: Wadsworth.
- Gearhart, S., & Zhang, S. (2015). Same spiral, different day? Testing the spiral of silence across issue types. *Communication Research*, 45, 34-54.

doi:10.1177/0093650215616456

- Glynn, C. J., Hayes, A. F., & Shanahan, J. (1997). Perceived support for one's opinions and willingness to speak out: A meta-analysis of survey studies on the "spiral of silence."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1, 452-463. doi:10.1086/297808
- Glynn, C. J., & McLeod, J. M. (1984). Public opinion du jour: An examination of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8, 731-740. doi:10.1086/268879
- Glynn, C. J., & Park, E. (1997). Reference groups, opinion intensity,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9, 213-232. doi:10.1093/ijpor/9.3.213
- Hayes, A. F., Glynn, C. J., & Shanahan, J. (2005). Willingness to self-censor: A construct and measurement too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 298-323. doi:10.1093/ijpor/edh073
- Hayes, A. F., Matthes, J., & Eveland, W. P. (2013). Stimulating the quasi-statistical organ: Fear of social isolation motivates the quest for knowledge of the opinion climate. *Communication Research*, 40, 439-462. doi:10.1177/0093650211428608
- Heo, R. (2018, January, 19). *The controversy of minimum wage should be changed to be the question about 'What's the appropriate allowance?'*. The Korea Economic Daily. Retrieved fr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981741>
- Ho, S. S., Chen, V. H. H., & Sim, C. (2013). The spiral of silence: Examining how cultural predispositions, news attention, and opinion congruency relate to opinion express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3, 113-134. doi:10.1080/01292986.2012.725178
- Ho, S. S., & McLeod, D. M. (2008). Social-psychological influences on opinion expression in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5, 190-207. doi:10.1177/0093650207313159
- Hyun, T. (2017). *The strategy of good speech: How to win the debates and arguments*. Seoul: DongmunSun.
- Infante, D. A., & Rancer, A. S. (1982).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 of argumenta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72-80. doi:10.1207/s15327752jpa4601\_13
- Jeong, D. (2019).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express opinions in debates: Fear of isolation, success expectancy in debate, relative argument strength, and attitude certain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D. & Chung, S. (2018). When and to whom do we express our opinion? Success expectancy in debate

- and relative argument strength as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express on social iss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1), 98-128.
- Katz, E., & Fialkoff, Y. (2017). Six concepts in search of retirement.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1, 86-91. doi:10.1080/23808985.2017.1291280
- Kenamer, J. D. (1990). Self-serving biases in perceiving the opinions of others: Implications for the spiral of silence. *Communication Research*, 17, 393-404. doi:10.1177/009365090017003006
- Kim, G. (2018, August, 2). 'A double-edged sword' Accelerating the controversy over the minimum wage increase. Ulsan Jonghap Daily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74>
- Kim, S., Han, M., Shanahan, J., & Berdayes, V. (2004). Talking on 'sunshine in North Korea':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as a theory of powerful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 39-62. doi:10.1093/ijpor/16.1.39
- Kim, S., Kim, H., & Oh, S. (2014). Talking about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internet in the spiral of silence proces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7, 713-732. doi:10.1080/15205436.2013.847460
- Kruglanski, A. W., Jasko, K., Chernikova, M., Milyavsky, M., Babush, M., Baldner, C., & Pierro, A. (2015). The rocky road from attitudes to behaviors: Charting the goal systemic course of actions. *Psychological Review*, 122, 598-620. doi:10.1037/a0039541
- Langlois, J. P., & Langlois, C. C. (2007). Dispute settlement design for unequal partners: A game theoretic perspectiv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 347-382. doi:10.1080/03050620701681809
- Lasorsa, D. L. (1991). Political outspokenness: Factors working against spiral of silenc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68, 131-140. doi:10.1177/107769909106800114
- Matthes, J., Morrison, K. R., & Schemer, C. (2010). A spiral of silence for some: Attitude certainty and the expression of political minority opinions. *Communication Research*, 37, 774-800. doi:10.1177/0093650210362685
- Moy, P., Domke, D. S., & Stamm, K. (2001). The spiral of silence and public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 7-25. doi:10.1177/107769900107800102
- Neubaum, G., & Kramer, N. C. (2016). What do we fear? Expected sanctions for expressing minority opinions in offline and online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45, 139-164. doi:10.1177/0093650215623837

- Neuwirth, K. (2000). Testing the spiral of silence model: The case of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 138-159. doi:10.1093/ijpor/12.2.138
- Neuwirth, K., Frederick, E., & Mayo, C. (2007). The spiral of silence and fear of isol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7, 450-468. doi:10.1111/j.1460-2466.2007.00352.x
-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43-51. doi:10.1111/j.1460-2466.1974.tb00367.x
- Noelle-Neumann, E. (1977). Turbulences in the climate of opinion: Methodological applications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1, 143-158. doi:10.1086/268371
- Noelle-Neumann, E. (1993).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 our social ski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hagan, H. (1996). Reference group influence on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 335-354. doi:10.1093/ijpor/8.4.335
- Park, K. S., & Lee, K. Y. (2012). How do people perceive dominant opinion climate and express Their Opinions? A study on the issue of US mad cow beef impor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6(3), 458-494.
- Petric, G., & Pinter, A. (2002). From social perception to public expression of opin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37-53. doi:10.1093/ijpor/14.1.37
- Petrocelli, J. V., Tormala, Z. L., & Rucker, D. D. (2007). Unpacking attitude certainty: Attitude clarity and attitude correct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30-41. doi:10.1037/0022-3514.92.1.30
- Price, V., & Allen, S. (1990). Opinion spirals, silent and otherwise: Applying small-group research to public opinion phenomena. *Communication Research*, 17, 369-392. doi:10.1177/009365090017003005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doi:10.1007/BF01173489
- Scheufele, D. A. (1999). Deliberation or dispute? An exploratory study examining of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1, 25-58. doi:10.1093/ijpor/11.1.25
- Scheufele, D. A., & Moy, P. (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 3-28.

doi:10.1093/ijpor/12.1.3

- Scheufele, D. A., Shanahan, J., & Lee, E. (2001). Real talk: Manipulating the dependent variable in spiral of silence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28, 304-324. doi:10.1177/009365001028003003
- Shim, K., & Oh, S. (2018). Who creates the Bandwagon? The dynamics of fear of isolation, opinion congruency and anonymity-efficacy on social media in the 201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6, 181-189. doi:10.1016/j.chb.2018.04.012
- Slater, M. (2007). Reinforcing spirals: The mutual influence of media selectivity and media effects and their impact on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identity. *Communication Theory*, 17, 281-303. doi:10.1111/j.1468-2885.2007.00296.x
- Tormala, Z. L., & Rucker, D. D. (2007). Attitude certainty: A review of past findings and emerging perspective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469-492. doi:10.1111/j.1751-9004.2007.00025.x
- Willnat, L., Lee, W., & Detenber, B. H. (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391-412. doi:10.1093/ijpor/14.4.391
- Yun, G. W., & Park, S. (2011). Selective posting: Willingness to post a message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6, 201-227. doi:10.1111/j.1083-6101.2010.01533.x

최초 투고일 2019년 6월 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9월 20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3일

## 부록

- 김귀임 (2018, 8, 2). '양날의 검' 최저임금 인상, 논란 가속화. <울산종합일보>. Retrieved from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74>
- 박경숙·이관열 (2012). '편향적' 여론 환경의 인지와 의견표명에 대한 연구: 미국 소고기 수입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권 3호, 458-494.
- 정다운 (2019). <논쟁 상황에서 의사표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고립에 대한 두려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다운·정성은 (2018).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가? 논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 결정요인으로서의 동의 가능성 지각과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한국언론학보>, 62권 1호, 98-128.
- 정효명 (2012). 동질적인 대인커뮤니케이션과 침묵의 나선: 2007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3호, 85-109.
- 허란 (2018, 1, 19). 최저임금 논란, '적정수준이 얼마인가'로 질문 바뀌야. <한국경제>. Retrieved fr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981741>
- 현택수 (2017). <말 잘하기 전략: 토론, 논쟁에서 이기는 법>. 서울: 동문선.

## 다수 의견은 소수 의견을 어떻게 침묵에 이르게 하는가?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의 매개 효과 검증

정다운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BK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정성은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들이 사용했던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 문항들을 검토하여 이를 고립을 두려워하는 개인적 성향,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논쟁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변수가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의견 분위기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의 매개 효과를 검증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면대면 상황( $N = 367$ )과 온라인 상황( $N = 327$ )에서의 의사표현 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립에 대한 개인적 성향은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나 고립에 대한 상황적 두려움은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과 의사표현 여부의 매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은 다수 의견에 대한 지각이 의사표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했고,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핵심어:** 고립에 대한 두려움, 논쟁에서의 성공 가능성 지각, 주장의 상대적 견고성,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의사표현